‘쫄깃한 맛 일품’ 벌교 꼬막축제 열린다

31일부터 나흘간…꼬막비빔밥 만들기·갯벌체험 등 다양
조정래 작가와 함께 하는 ‘태백산맥 문학제’도 열려

제18회 벌교 꼬막축제가 오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소설 태백산맥의 주 무대인 보성군 벌교읍에서 ‘태백산맥 문학제’와 함께 열린다.

축제 첫날인 31일 벌교 천변에서는 대형 꼬막 비빔밥(2000인분) 만들기와 미스트롯 출연진 축하 공연, 불꽃 쇼를 선보인다.

갯벌 체험장에서는 레저뻘배타기 체험, 갯벌 생물 잡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경험할 수 있다.

둘째 날에는 꼬막 경매, 꼬막 까기, 꼬막 던지기 경연, 꼬막가요제 결선 공연이 예정돼 있다.

셋째 날에는 조정래 작가와 함께 소설 태백산맥 주 무대를 투어하고, 소설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문학 토크쇼를 만날 수 있다.

또 청정 갯벌을 온몸으로 즐기는 레저뻘배대회도 열린다.

갯벌 깃발 뽑기 서바이벌에서부터 갯벌 달리기, 갯벌 속 보물찾기 등 즐거운 놀이와 함께 갯벌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다.

축제 마지막 날에는 황금 꼬막 이벤트 추첨, 꼬막 요리 경연대회, 채동선 콩쿠르, 선상 불꽃쇼 등을 선보인다.

꼬막 시식·요리 체험, 문학축제 스탬프 투어, 소설 ‘태백산맥’ 필사본 쓰기, 벌교 갈대밭 투어 등은 축제 기간 내내 즐길 수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벌교 꼬막은 수산물 지리적표시 전국 1호로 여자만의 깊고 차진 갯벌에서 생산돼 다른 어느 지역의 꼬막보다도 육질이 쫄깃하고 맛이 좋다”며 “태백산맥 문학제와 함께 즐기는 풍성한 축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벌교=김윤성 기자 kim0686@

제18회 벌교 꼬막축제가 오는 31일부터 소설 ‘태백산맥’의 주무대인 벌교읍에서 ‘태백산맥 문학제’와 함께 열린다. 지난해 축제때 대형 꼬막 비빔밥 만들기 행사 모습. 〈보성군 제공〉

구례군, 섬진강 은어 수정란 300만개 방류

내수면 생태계 복원·수산자원 조성…주민 소득증대 기대

구례군은 최근 섬진강 대표 어종인 은어 수정란 300만개를 섬진강어류생태관 인근에 방류했다고 15일 밝혔다.〈사진〉

이번 수정란 방류는 섬진강에 은어 자원량을 증가시키고 내수면 생태계 복원과 풍부한 수산자원 조성으로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방류사업은 섬진강환경어족보존회 주관으로 지역주민과 공무원 합동으로 이루어졌으며 섬진강에서 직접 포획한 은어에서 채란·수정해 방류했다.

방류한 수정란은 2주가 지나면 부화해 바다로 내려갔다가 내년 봄에 상류로 돌아오게 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1월부터 현재까지 전남도 민물고기연구소 민물고기 방류사업 지원 등으로 10회에 걸쳐 빙어·은어 수정란 1100만개, 뱀장어, 쏘가리, 자라 등 토산어종 52만 마리를 방류했으며 앞으로도 섬진강 수산자원 증식으로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곡성군, 사업비 17억 투입 보훈회관 건립 박차

상이군경회 군지회 등 7개 단체 이용…내년 1월 완공 목표

곡성군이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보훈회관〈조감도〉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곡성군에 따르면 곡성 보훈회관은 지상 2층, 연면적 500㎡ 규모로 곡성읍 읍내리 824-1번지 일원에 조성되고 있다.

지난 7월1일 첫 삽을 떴고 현재 골조공사까지 완료된 상태다.

곡성에는 상이군경회 곡성군지회 등 7개의 보훈단체가 있다. 하지만 이들 단체가 보훈회관이 별도로 없어 사회복지회관 2층을 사용해 왔다.

7개 단체들의 사무실만으로도 빽빽할 정도로 공간이 비좁아 단체별 다양한 활동과 회원들 간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군은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의 복지 증진과 보훈단체 교류 활성화를 위해 보훈회관을 건립하기로 계획했다.

총 사업비는 17억원으로 보훈처에 국비 지원을 요청해 확보한 5억원과 군비 12억원이 소요된다.

군은 회관 건립 외에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군 전역에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앞서 3월에는 3·1절 1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사)국조단군숭모회에 3·1운동 시비 제작비를 지원했다.

6월에는 6·25 전쟁 때 곡성을 지켜냈던 한정일 경찰서장에 대한 동상 건립비 1억원을 태안사정찰작전참전동지회에 지원하기도 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보성군, 20~30대 젊은 관광객 유치
‘미식투어’ 등 새 콘텐츠 개발 ‘속도’

보성군이 미식투어 등 젊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성군은 최근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에서 ‘보성 미식투어-달콤 테이스티 로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신 여행 경향에 미식투어 컨셉트를 접목한 여행 콘텐츠로 20·30대 젊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기획됐다.

지난 9일 실시된 달콤 테이스티 로드에서는 보성 차로 만든 음식으로 차밭에서 팜파티를 열고 차밭 피크닉 등 여행프로그램을 즐겼다.

참가자들은 “보성의 독자성은 유지하면서도 신선한 느낌이 더해진 관광 프로그램이었다”고 호평했다.

군은 이번 여행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그동안 차밭을 둘러보고 차를 만들어 보는 등 체험 위주의 관광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고 트렌드를 선도하는 관광 콘텐츠 보강으로 보성의 다양한 관광지와 특산품을 색다른 관점에서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고흥군, 청소년 가족소통 프로젝트 ‘마음동행’ 호응

13가정 50여명 참여 글램핑장 체험·미술상담 등 가져

고흥군은 청소년 가족소통 프로젝트 ‘마음동행’ 프로그램을 지난 12일까지 1박2일간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마음동행은 고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부모·자녀간 소통과 이해의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으로 매년 10월 중에 운영했다.

올해는 해창만 오토캠핑장에서 13가정 50여명이 참여해 글램핑장 1박 체험과 집단 미술상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사진〉

또 참가 가족들은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우주발사전망대, 미르마루길 투어 등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

고흥군 관계자는 “청소년이 가정에서 행복하면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는 우리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맞춤형 상담, 체험프로그램, 교육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가족소통 프로그램 ‘마음동행’에 이어 오는 25일 오후 7시 청소년문화의집 4층에서 ‘자녀의 올바른 인성지도를 위한 소통 및 대화기법’을 주제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

고흥군, ‘고흥분청사기 도예강좌’ 운영

군민 여가생활·분청사기 대중화 위해 매주 목요일 진행

고흥군은 군민들의 여가생활과 고흥 분청사기의 대중화를 위해 ‘고흥분청사기 도예강좌’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고흥분청문화박물관 내 한옥다목적체험관에서 오는12월26일까지 12주간 매주 목요일 운영된다.

‘고흥 분청사기의 기초이론 및 분청사기 제작’을 주제로 코일링, 판성형기법 등 분청사기 제작의 기초 이론 교육과 7가지 기법을 활용한 분청사기 제작, 물레를 활용한 분청사기 제작, 전통 분청사기 흙가마 불지피기를 통한 분청사기 소성 등 실습으로 진행된다.

주간반과 함께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도 운영되며 도예강좌 수료 이후 수강생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행사도 열린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

풍암동, 동부 센트레빌, 근린상가, 매매/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상가 1층 4거리 코너
  800세대 APT 정문 앞
- 분양평수 50평, 실평수 36평
  (기타 서비스 공간 10평 있음)
- 매매 – 7억원(대출 2억5천만 포함)
  임대 – 보5천만원에 월세 350만원
  문의. 010-6834-7400